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 인천의 꿈, 대한민국의 미래
		배포일자 2022년 9월 4일(일) 총 3매		
담당 부서 자연재난과	담 당 자 • 자연재난팀장 김형석 ☎440-3351 • 담당자 윤태웅 ☎440-3352		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태풍 ‘힌남노’ 대비 초기 비상근무체계 가동

- 유정복 시장, 상황점검(판단)회의 주재 시설물 점검 및 피해 최소화 지시 -
 - 시, 비상근무 돌입해 선제적 상황관리, 피해 예방조치·안전사고 주의 당부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제11호 태풍 ‘힌남노’ 북상에 따른 피해 발생에 대비하고자 지난 9월 3일부터 초기대응단계를 유지하는 등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.

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는 강력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를 동반하고 있고, 그 위력이 1959년 ‘사라’ 나 2003년 ‘매미’ 보다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이와 관련해 유정복 시장은 4일 오전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해 시내 곳곳에 설치된 현수막과 도로 입간판 등 취약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철거하고, 창문·간판 추락 방지 및 항만, 선착장 내 선박 안전조치 등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.

또, 이날 오후에는 유정복 시장 주재로 시민안전본부장 등 14개 실·국장과 10개 군·구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, ‘힌남노 대비 상황

판단회의'를 개최하고 태풍의 이동경로와 기상 상황을 점검하고, 강풍과 호우 피해에 대한 대처계획 등을 논의하는 한편, 현재의 재난대응체계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선제적 대응 및 상황 관리로 안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.

유정복 시장은 “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안가, 건설현장,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점검과 함께 재해복구사업장과 반지하 주택 등을 포함한 상습 침수지역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”고 말했다.

이어, “재난정보시스템을 정비해 시민들이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, 시민 여러분께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풍 발령 시에는 외출을 삼가고 필요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등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
한편, 시는 이번 태풍에 대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시설 등 방재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. 특히, 인명피해 우려지역 47개소, 침수우려도로 16개소 등 재해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·순찰을 강화하고, 해안가 저지대 및 지하차도, 반지하 주택 등 상습 침수주택 수시 점검 및 위험상황 발생 시 대피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명·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4시)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

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<http://tv.incheon.go.kr/>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<오늘 오전 9시 상황점검회의 사진입니다.

14시 유정복 시장 주재 시민안전본부장 등 14개 실·국장과 10개 군·구 부단체장이
참석한 ‘힌남노 대비 상황판단회의’ 사진은 행사(14시)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
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 (<http://tv.incheon.go.kr/>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